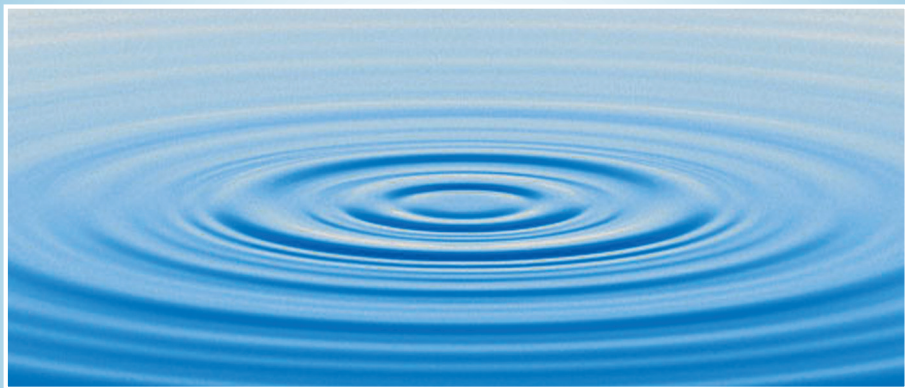




창세기 1장(3)

“땅은 형태가 없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

1절에 창조된 땅(地)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1절은 한자인 ‘지(地)’로 2절은 한글인 ‘땅’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듯 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둘 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에레츠(ereṣ)다. 영어성경도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earth)로 번역했다. 우리말성경도 둘 다 한글인 ‘땅’으로 번역했다. 두 절 모두 지구를 언급하는 것은 이어지는 1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둘째 날에 궁창으로 물을 나누는 장면이나, 셋째 날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이때 드러난 마른 땅에 식물이 자라고, 다섯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모두 지금 우리

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 땅을 ‘혼돈과 공허’로 번역한 것은 다소 해석적인 면이 들어있는 듯하다. 대표적인 영어성경들도 모두 ‘formless and empty’(NIV), ‘without form and void’(KJV), ‘formless and void’(NASB)와 같이 모두 ‘형태가 없으며 비어있다’고 번역했다. 우리 말성경에서도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으며’로 번역했다. 혼돈과 공허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 얼핏 무질서(chaos)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중립적인 묘사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문장을 볼 때는 오히려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창조의 장면은 첫째 날 창조 사역 가운데 빛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일련의 과정에서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며, 이것이 창조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p4 간격이론 참고)

이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며 빛이 창조되기 전인 지구 주위의 캄캄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때 깊음이란 단어는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홍수심판 때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창 7:11)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인데 주로 심해로 해석된다. 즉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 존재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의 ‘수면’에서 뒷받침된다. 또한 이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형상인 인간이 살게 될 지구를 감싸며 창조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처음에는 뜨거운 불덩이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의 막연한 기간에 걸쳐 점차 식으며 결국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 처음부터 물과 함께 물의 지구(watery earth)를 말한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급된 첫 구체적인 물질의 이름이다. 잘 아는 것처럼 물은 화학식이 H₂O다. 어려운 화학적 논의를 떠나서라도, 물은 가장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수소, 산소, 핵, 전자, 소립자, 미립자 등등... 물보다 더 단순한 물질들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의 단계 없이 바로 물을 만드셨다. 수소는 폭발성이 있다. 산소는 불이 나도록 한다. 전자, 핵, 소립자, 미립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아주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주의적인 사고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물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논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완전한 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만약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그만큼 진화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진화의 속성이며 한계인 것이다. 복잡한 것부터 되었다면 결국 창조자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

다. 만약 독자들이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불덩이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진화론적 지질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 증거도 없다. 단지 태양이 뜨겁고,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지구가 처음에는 뜨거웠을 것이라는 상상에서 나온 것뿐이다.

세미나 후에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데요...” 하며 다가와서 질문하면서도, 이미 그분 안에 진화론이 들어있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원숭이와 사람이 공통조상에서 비롯된 것이나 단순한 생물에서 인간까지 진화되었다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단지 이런 인류의 기원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시공간과 물질의 모든 역사를 보는 관점에 속속히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니까 우주가 겪었던 과거에 대하여 인간 혼자서 깨달아 알려고 하는 모든 영역이 진화론이다.

그런 면에서 진화론적 사고는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하기 훨씬 이전부터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 바벨탑의 언어 혼돈 후에 흩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각 나라들은 이미 진화론적 사고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에 대하여는 스스로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서 닮은 것끼리 묶고,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되었다는 진화론적 사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진화론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과학책 안에 들어 놓은 것이 문제였다. 이미 우리 마음에 진화론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진화론을 처음 대하는 사람도 그 과학적 증거와는 별개로 진화론을 쉽게 수용해 버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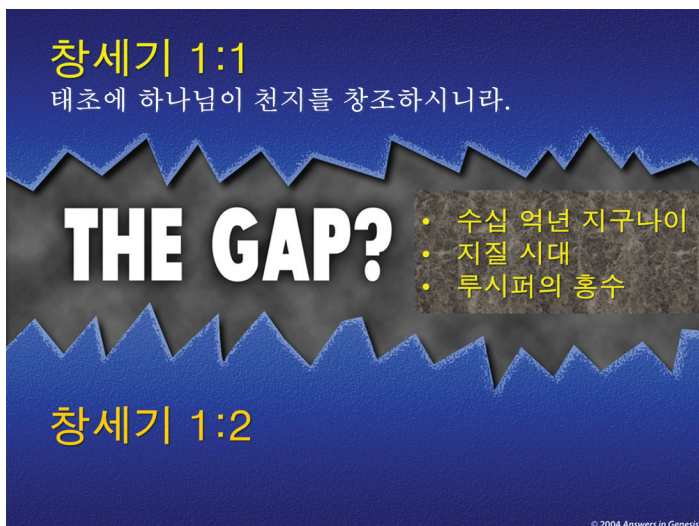
우리는 그런 존재다. 혼자 깨달아 알려고 하면 진화론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기에 추가해서 어릴 때부터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각 사람들은 진화론의 실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화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과학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이것까지도 틀린 거야? 정말 거꾸로 배워왔구나!”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진화론에 벗어나서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현 불가능한 말이다. 이미 우리는 스스로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꾸로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구가 처음부터 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읽으며, ‘아! 지구가 불덩이였다는 진화론에 젖어있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칼럼을 읽으며, 창세기를 거울로 삼아, 독자 자신이 얼마나 진화론의 흠탕물에 묻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진화론이 묻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만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떤 과정으로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첫 주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려보길 기대한다.

앞으로 이 글을 읽어나가며 창조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것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움이 있다. 필요한 것을 바로 바로 창조하시면서 다음 것을 염두에 두시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세기 1장(4)

간격이론이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빛이요!”

첫째 날 창조된 것에 대한 질문에 거의 대부분은 “빛”만 대답한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날 빛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며 시간, 공간, 그리고 첫 물질인 지구를 창조하셨다(7월호 참고). 이어서 2절에 그 창조된 지구의 묘사가 기록되어있다(이번 호 참고). 그리고 나서 빛이 창조된 것이다. 이 모두가 첫째 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빛”만을 대답하게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간격이론이다.

간격이론(gap theory)이란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또는 3절 사이에 수십 억년의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이론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1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 1, 3절 사이에 커다란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른 말로 재창조설이라고도 부른다. 즉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개역개정에는 혼돈과 공허)는 모습을 무질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심판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절을 원시창조, 3절 이후부터 재창조라고 말한다.

간격이론은 17세기 잠시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이상한 이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동안 사라졌다가 오랜 지구나이가 고개를 들 무렵인 19세기 초에 차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와 지질학자며 목사인 버클랜드(William Buckland, 1784-1856)에 의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이론에 대한 글들이 여럿 등장했는데 특히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지질학자인 밀러(Hugh Miller, 1802-1856)가 더 상세하게 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1970년에 쿠스탄스(Arthur Custance)가 “혼돈과 공허(Without form and Void:

책의 내용상 여기서는 혼돈과 공허라는 번역이 어울림)”이라는 책에서 간격이론을 옹호한 것이 교회에 크게 파급되는 계기가 됐다.

간격이론이 파급되기 시작한 후의 글들은 어김없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간격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주석성경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17년 개정된 스코필드 스테디 성경은 “화석은 원시창조로 설명되며, (그러면) 창세기의 우주진화 모양과 과학은 모순이 없다”고 설명했다. 1963년 출판된 대이크(Finis Dake)의 주석 성경도 “(수십억 년) 지구나이에 동의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만 년을 놓는다. 그러면 창세기와 과학 사이에 모순이 사라진다”며 전형적인 간격이론에 기초해서 해석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간격이론은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지질시대를 2절 속에 몰아넣으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전형적인 타협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지구 상에 지질시대라는 진화역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을뿐더러, 타협이론을 쫓아가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생각(물론 이 생각은 진화론적 사고를 말한다)과 일치하는 것 같아 만족하지만, 결국 성경 전체로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까지 손상을 입히게 된다.

간격이론은 ‘간격 없는 2절’ 속에 수십억 년의 기간을 넣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상상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는다. 실제로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을 이 간격 안에 넣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탄이 이 간격 때 타락했으며, 이때 타락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재창조를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루시퍼의 홍수가 있었다고도 하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만든 간격이기 때문에 이들은 간격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도 자신들이 쉽게 만들어버린다.

만약에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 어딘가 적혀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죽음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 오히려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사만 등장하며, 죄 이전에는 어떤 고통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고통이 들어온 것이다(창 3:18; 롬 8:22). 성경은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했다(고전 15:45; 롬 5:12). 이 간격이론대로라면 아담 이전에 모든 것들이 고통과 함께 죽었던 적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격이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며 인간의 죄의 결과도 약화시킨다.

실제로 문맥상으로 볼 때는 두 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들어갈 틈이 없다. 창세기 1장 전체는 매 절마다 ‘그리고(and)’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waw’가 들어있다. 영어번역 가운데 접속사를 하나도 빼지 않은 KJV나 NASB 등으로 보면 매절마다 맨 앞에 있는 ‘and’가 쉽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물론 오랜 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1, 2절 사이와 2, 3절 사이에도 모두 동일한 ‘and’가 들어있다. 즉 창세기 1장의 일련의 창조과정 가운데 어떤 곳에도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을 넣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 때문이다.

진화론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들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역사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경의 역사를 변형시킨 모든 타협이론은 똑 같이 이 부분에서 성경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간격이론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간격이론도 수십억 년의 진화역사를 이미 받아들인 전형적인 타협이론이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 명칭 변경

지난 2000년부터 250회 진행해 온 “창조과학탐사여행”의 이름을 “창조과학탐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러 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창조과학선교회에서도 지난 달부터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의 작은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주신 교회와 개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칭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존 “창조과학탐사여행”과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모집 빙하탐사



뉴욕 교회협의회 빙하시대탐사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

지난 한 달 동안 여섯 번의 창조과학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어권에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 영어권에 김선욱 박사 등이 총 동원되는 창조탐사로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개인 모집으로 이루어진 빙하시대탐사(6/20-22)를 비롯해서 주님의빛 교회(담임목사 주혁로, 6/20-22), 뉴욕 교회협의회 빙하시대탐사(6/24-27), 밴쿠버 성산교회(담임목사 오영석, 6/24-27), Korean Covenant Church of Marietta(EM, 담임목사 황일하, 6/29-7/1),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빙하시대탐사(담임목사 김재석, 7/11-13) 등 뿐 아니라, 한국에서 모집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6/28-7/4)까지 각 창조탐사가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밴쿠버 성산교회 탐사



하성민 형제 3개월의 인턴과정을 마침

지난 5월 중순부터 인턴과정 중이던 하성민 형제가 3개월 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하성민 형제는 작년 겨울 두 달간의 ITCM-1 과정을 마치고 이번 ITCM-2에 참석했습니다. 3개월 간 홈페이지 구축과 창조과학탐사 보조 등을 하며 성실하게 인턴과정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 창조과학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하성민 형제의 발길에 주님의 인도가 있기를 기도해주시오.

세미나

창조탐사로 바쁜 가운데도 세미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해오름교회, YM Diaspora, ANC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5기 ITCM-1 참가자 모집

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과정은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집중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성경-과학-사역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뿐 아니라, 창조과학 탐사와 세미나 등 사역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일 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ITCM-1 과정의 모집 인원은 총 7명이며 훈련 기간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추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ITCM-1에 대한 문의는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타 모니카 온누리교회 탐사



주님의 빛 교회 탐사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탐사



제 4차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창조과학선교회에게는 큰 감회가 있습니다. 지난 2009-11년에 ANC은 누리교회의 후원으로 매년 한 차례씩 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에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저희 창조과학선교회 후원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시작으로 LA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창조과학 사역이 자리가 잡혀왔습니다. 창조탐사뿐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집중세미나도 매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의 집중세미나는 80명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학생들을 보내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신학교도 그 영향력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한 여러 타협이론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보수를 표방하던 신학교까지 창세기 1-11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의 목회와 선교를 감당할 신학생들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의 사실됨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종전의 사흘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2013년 10월 28-31일(월-목 4일간)

출발: LA (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고)

경유지: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참가비: 1인당 \$150 (창조과학선교회가 \$320 보조)

참가신청 자격: 대학원 과정 이상의 신학생 혹은 배우자(자녀는 참가할 수 없음)

참가신청과 참가결정:

본인 소개와 참가 희망 동기를 적은 소정의 신청서를 9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하시면 본 선교회가 참석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은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 바람)

M Div. 과정을 마친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있다. 과거에는 ‘학질’이라고 알려졌던 질병인데 모기에 의해 감염이 된다. 모기가 피를 빨 때 혈액을 타고 몸 속에 들어 간 병원균은 간(liver)에서 번식을 시작하고 7~10일 후에는 다시 피 속으로 나와 적혈구에 침입한다. 여러 적혈구에서 번식한 균들은 동시에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와 더 많은 적혈구에 침입하는 사이클을 계속한다. 이 때 학질 특유의 주기적인 발작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병원균이 2차 번식을 할 장소인 적혈구가 정상이 아니기 때

문에 병원균이 번식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도넛 모양인데 이 경우는 적혈구가 낫(sickle) 모양(검상)으로 변해 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헤모글로빈(hemoglobin)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된 것이 원인이다. 돌연변이 결과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적혈구를 길고 유연성이 없는 낫 모양으로 만들어 작은 혈관들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빈혈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유전병을 겸상적혈구 빈혈증(sickle-cell anemia)이라고 부른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에게 많은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진화의 동력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서부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4% 정도까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있다. 이 현상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해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자연선택 자체는 새로운 기능이 생겨 나는 진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이며, 돌연변이는 진화의 반대 방향인 망가짐이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헤모글로

빈의 돌연변이를 통해 산소 운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더 이상 헤모글로빈으로 산소를 운반하지 않는 사람이 우연히 나타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보다 3 배나 더 흔한 질소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나타 나야 할 것이다. 우연히 이런 새로운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진화가 증명 되는 것인데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화론은 우연히 새로운 질서(기능)가 생겨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학 법칙과 정면으로 배치 된다.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예외가 없는 법칙으로 알려 진 열역학 제 2 법칙은 모든 것은 무질서해 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화는 불가능하다. 성경도 창조 되었던 처음이 가장 좋았고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죽음과 고통이 있게 되었다고 하며, 이 세상은 계속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욱 타락하여 나빠졌다고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 법칙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우연히 점점 발전하는 진화가 끼어 들 틈이 없다.

검상적혈구 빈혈증은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겨 났거나 새로운 기능이 생겨 난 진화가 아니라 온전했던 헤모글로빈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망가진 타락의 결과다. 성경은, 현재의 생물들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고 말한다.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말의 중요성은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선언이다. 사람은 진화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된 존재이다(시편8:5; 창세기 1:26-27).



최우성 박사
생리학

AFTER EDEN

by Dan Lietha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18-19



신념을 믿는가 성경을 믿는가

우리 모두는 신념이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평화가 올 것이라는 신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신념,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 등. 신념이란 사람들을 뛰게 만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로 드러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열정적으로 만든다. 강한 신념은 더 큰 열정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작은 노력 하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런 작은 노력 하나는 더 의미있어진다. 따라서 일말의 회의는 오히려 신념을 다잡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정말 변할 것 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실존주의의 시대에 교회에서도 믿음 대신 이런 “신념”을 흔하게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신론이 점점 더 팽배해져가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제도화되고 경직화된 교회를 보면서, 거대한 자연재해와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여러 문서를 자의적으로 모아놓은 책이라고 가르치고, 무신론적 자연주의자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적 진화의 산물이니 창세기는 신화라고 가르치고, 종교적 선생들이 예수는 신이 아니라 위대한 한 스승이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성경과 그리스신화의 차이를 제대로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즉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말일 뿐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 무신론과 실존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실재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의 “신념”이 되었다. 하나님의 실재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신념을 갖는다. 혹은 하나님은 실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 성경에 써있는 대로는 아니고, 상식 선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재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래서 사실이기보다 우리끼리의 약속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할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는 근본적 불안함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의 신념,” 그 불완전한 심리적 다짐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자가 아닌 상한 갈대갈고 흔들리는 촛불 같은 우리 자신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세상에 우리는 던져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 매일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추구하는 “나의 신념”의 대상은 아닌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근원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성경으로 다시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확신의 기쁨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의 문제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누가복음 18:8)”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한복음 11:26)”

하나님의 실재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의 “신념”이 되었다.
하나님의 실재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신념을 갖는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성남 성안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5/17 - 23, 2013

성경의 신화 같은 말씀이 진정 사실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줄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 드린다. - 주태일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모든 무서운 것들 보다 훨씬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지존하신 분께서 한 없이 나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깊이 깨닫고 갑니다. - 김찬양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확실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자기 합리화가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 김인경

진화론을 더욱 믿어왔는데 모두 순전히 거짓이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며 정말 먹먹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성경이 모두 진짜라는 사실을 돌아주어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 이진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틀렸다 하였을 때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조론에 대해 배우면서 학교에서 배울 때 왜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했다는 반성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안규희

“성경은 사실이고, 처음이 좋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Grand Canyon의 웅장함에 감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힘 과 능력의 위대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 주한빛

이번 창조과학에 와 보니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지 놀랐습니다. 이번 창조 과학 탐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배워서 먼저 왔던 저희들이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 허경석

하나님의 창조, 이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그 분을 영원히 찬양(예배) 하기 소망합니다. - 강종원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저의 믿음은 다름이 없었지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할 따름입니다. 수학의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풀리는 기쁨 속에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걸 느끼면서 그저 놀라움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 오길환

우리가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창세기를 명확하게 과학으로 증거를 보여주며 풀어 주시는 선교사님께 감사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지식인들과 용기 있게 맞서서 창조론에 대해 논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그 동안 만나보지 못해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창조과학 연구팀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미정

내가 여태껏 배운 배움의 전부를 기초부터 혼든 여행이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의심을 품고 있던 세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탐사였습니다. - 오예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에게도 이 사실을 많이 가르쳐야겠습니다! - 최한나

사실 교회를 다니는게 믿음이 아니라 놀러다니는 식으로 다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믿음이 가고 교회 다닐 때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은우

하나님이 대단하신 존재라고 생각 되었고 원래 기도 할 때에도 생각만 하나님께 의지 할 뿐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유하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멋지다'라고 생각했고 선교사님께서 이 캐년들이 북미 전체 하나로 이어졌다고 들었을 때 ... 완전히 믿게 되었고 이런 기회로 창조과학 탐사 온 것이 정말 잘 왔다고 생각 했고 왜 공룡과 이 세상에서 사라진 동물들이 멸종 되었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최단비

아!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나 하고 많이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렵고 딱딱하기만 했던 성경책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수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과 육기의 많은 부분이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열린 것이 너무 감사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학의 증거를 가지고 진화론의 허구를 밝혀 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강숙희 <열방의 빛 교회>

감격이었다.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믿음 이 좋다고 생각 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 여행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 - 김진석 <서울 영동 교회>

이번 탐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사실들을 알아 기뻐고 성경의 쓰여진 것들이 이해가 되어 더욱 믿음이 깊어진 것 같아 기쁩니다. - 이규홍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7/29-8/3 병하시대탐사 (부산 영도팀), 이재만
 8/4-8/8 창조과학탐사 (지구촌교회), 이재만
 8/5-7 창조과학탐사 (커피브레이크) E.M. 김선욱
 8/8-10 창조과학탐사 (나성 순복음교회) E.M. 김선욱
 8/8-11 창조과학탐사 (YM Diaspora) 이재만
 8/19-25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8/20-23 Toronto KOSTA, Canada, 최우성
 8/31-9/2 창조과학탐사 (LA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9/2-4 창조과학탐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재만
 9/5-7 창조과학탐사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9/9-11 창조과학탐사 (YWAM), 이재만
 9/10-11/12 시카고 노스필드장로교회 (제14기 중부창조과학학교, 630-400-6114), IL
 9/11-11/13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제15기 중부창조과학학교, 630-400-6114), IL
 9/12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9/13-12/13 시카고 뉴라이프교회(10주 금요 창조과학세미나 이동용, 600-400-6114), IL
 9/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9/19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9/23-28 창조과학탐사 (일본인), 이재만
 9/26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9/30-10/3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초대 교회), 이재만

10/3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10/4-10 창조과학탐사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10/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0/12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10/13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0/14-17 창조과학탐사 (남가주주님의교회), 이재만
 10/19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